

# 전위된 공격성이 사이버불링경향성에 미치는 영향과 가해자 정의민감성의 조절효과

소예은<sup>1</sup>, 김해숙<sup>2\*</sup>

<sup>1</sup>다사랑병원 수련생, <sup>2</sup>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Effect of the Displaced Aggression on Cyberbullying Tendencies and the Moderating Role of Penetrator Sensitivity

Ye-Eun So<sup>1</sup>, Hae-Sook Kim<sup>2\*</sup>

<sup>1</sup>Trainee, Dasarang Hospital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Ho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알아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위된 공격성과 피해자, 가해자 정의민감성이 사이버불링경향성을 예측하는지 살펴보고, 피해자, 가해자 정의민감성이 전위된 공격성과 사이버불링경향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20대 성인 261명을 대상으로 1개월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단순회귀분석 실시 결과, 전위된 공격성( $F=62.55$ ,  $p<.001$ )과 피해자 정의민감성( $F=29.61$ ,  $p<.001$ )이 사이버불링 경향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의 영향을 통제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해자 민감성이 전위된 공격성과 사이버불링경향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F=29.61$ ,  $p<.001$ ) 피해자 민감성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향후 연구가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같은 결과가 다른 연령대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공감적 이해와 같은 접근이 사이버불링경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임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전위된 공격성, 사이버불링경향성, 정의민감성, 가해자 정의민감성, 피해자 정의민감성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Displaced aggression and Justice sensitivity(victim sensitivity and penetrator sensitivity) on Cyberbullying tendency in 20s adult, and the moderating role of Justice sensitivity to identify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a serious social problem, cyberbullying. The online survey was handed to 261 adults in their 20s for a month. First, Sim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displaced aggression( $F=62.55$ ,  $p<.001$ ) and victim sensitivity( $F=29.61$ ,  $p<.001$ ) predict cyberbullying tendency. Seco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y controlling the effects of sex, the perpetrator sensitivity has been shown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isplaced aggression and cyberbullying tendencies( $F=29.61$ ,  $p<.001$ ), and the effect of victim sensitivity has not been significant. In conclusion, that future studies need to consider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to ensure that the same results are shown in different age groups and also some approaches such as empathetic understanding could help to reduce cyberbullying.

**Key Words** : Displaced aggression, Cyberbullying tendencies, Justice sensitivity, Penetrator sensitivity, Victim sensitivity

\*Corresponding Author : Hae-Sook Kim(2015154@honam.ac.kr)

Received March 23, 2021

Accepted June 20, 2021

Revised May 12, 2021

Published June 28, 2021

## 1. 서론

현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스마트폰을 집어 들어 검색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온라인 콘텐츠를 소비하고, 그 공간에 자신을 전신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공간은 이제 단순한 재미 추구나 정보 습득의 용도를 초월해 사회적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공간이 되었다[1,2]. 전자 통신 수단의 발전은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오·남용으로 인한 병폐는 꾸준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전자 통신 수단의 오용으로 인한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사이버불링이다. 사이버불링은 2000년 미국 뉴햄프셔대학교 아동범죄 예방센터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인터넷 가상공간을 의미하는 사이버와 괴롭힘을 뜻하는 불링의 합성어다[3]. 사이버불링은 인터넷과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일컬으며 모욕, 스토킹,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및 성희롱, 사칭, 욕설, 따돌림, 악의적인 루머 조장 등을 포함한다[4,5].

사이버불링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첫째, 사이버불링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의 사이버불링 연구는 학교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사이버불링은 현실에서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괴롭힘과는 달리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다루는 정보 통신 기술 능력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인터넷, 매체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이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일수록 인터넷에서 일탈적 행동을 할 경향성이 높다[6]. 결과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접근과 사용에 더 개방적이고 능숙한 학생 집단은 지금까지 사이버불링의 주된 피해자, 가해자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 연령이 크게 확대되면서 사이버불링은 더 이상 학생 집단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률은 54.7%로 전년도 대비 11.6% 증가하였으며 오히려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률은 26.9%로 전년도 대비 2.6% 줄었다[7]. 두 번째, 사이버불링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사람 10명 중 3~4명은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이나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살이나 자해 욕구를 느끼는 경우도 18.3%로 전년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8]. 마지막으로, 사이버불링은 가해자와의 차별적접촉으로 인해 전염된다. 차

별접촉이란 범죄행위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로 개인이 범죄행위에 빈번히 노출될수록 그 가지나 동기, 태도를 학습하여 범죄 혹은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사이버불링의 피해자는 비행친구와 접촉하여 또 다른 사이버폭력의 가해자가 된다[9].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이 없더라도 친한 친구 중 사이버폭력 가해자가 많다면 사이버불링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10]. 이처럼 사이버불링은 전염성 높은 질병처럼 주변인에게 퍼지는 특성이 있다. 사이버불링을 가까워서 접할수록 사이버불링과 무관한 사람도 언젠가 사이버불링 가해자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불링을 현재까지 드러난 가해 경험의 여부와 같은 전적 수준에서만 탐색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이버불링을 얼마나 자주 목격했는지, 사이버불링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어떠한지까지 확장하여 탐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직접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차후 사이버불링에 참여할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사이버불링경향성이라는 변인을 사용하였으며, 청소년에 국한되어있던 사이버불링에 관한 연구범위를 20대 성인으로 확장하여 성인의 사이버불링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이버불링 가해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지닌 독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 공간의 비대면성과 많은 사람을 무선적으로 또 동시다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점은 사이버불링의 특징과 유사하다. 사이버불링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선정할 때는 오랜 시간이나 합리적인 명분이 필요하지 않다. 사이버불링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공격성을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사실상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처럼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현상은 전위된 공격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위된 공격성이란 원래 공격성을 유발한 대상에게 직접적인 보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당시에는 공격성을 억제했다가 무고한 제 3자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11,12]. 이와 같은 정의에 의하면 전위된 공격성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드러낼 수 있다. 현대인은 자주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것을 즉각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전위된 공격성은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내재된 화를 무관한 타인에게 표출하는 것인데 사이버공간은 화풀이할 대상이 될 타인을 접하기 쉽다. 이와 함께 인터넷의 익명성은 원래 분노를 유발한 대상에게 공격성을 직접 표현했을 때 자신이 받게 될 피해나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전위된 공격성의 기저에 있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사이버불링과 실제적인 가해행위 및 공격성과의 관련성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청소년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예측요인 탐색을 위한 메타분석[13]에 따르면 공격성과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의 피가해 경험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불링 가해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알아내고자 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악성댓글을 빈번하게 다는 사람들은 어릴 적 학대경험이 있고[1] 사이버 윤리의식과 인지적 공감능력이 낮으며[14]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공격성과 충동성이 높다[15]고 보고했다.

사이버불링이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범주의 공격행위의 총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연관성은 자연스러우나 공격성은 욕설이나 모욕성 발언과 같은 언어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직접적이고 신체적인 폭력행위 또한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이버불링을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인다. 만약 공격성이 높다면 굳이 인터넷이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빌리지 않더라도 대면 상황에서 충분히 공격성을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본 연구는 전위된 공격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사이버불링경향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전위된 공격성과 사이버불링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도덕적인 변인에 관심을 두었다. 전위된 공격성이 반드시 공격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이 평소 자신 혹은 타인의 가해행위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하고, 도덕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행동을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는지가 가해 행동의 발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정의민감성(Justice sensitivity)은 불공정한 상황 및 행동에 관한 개인의 반응과 태도[16-19]로 알려져 있다. 정의민감성은 피해자, 관찰자, 가해자 정의민감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가해자 정의민감성은 자신이 타인을 부당하게 대했음을 인식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고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부당한 상황에서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공격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향성이다[20-23].

정의민감성은 공격성과의 관련성이 여러 연구[24-28]를 통해 입증되면서 최근에는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하위변인인 가해자 정의민감성의 효과가 연구마다 일관되지 않았다. 가해자 정의민감성은 이타적이고 타인지향적인 성격을 지니며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이고[29] 청소년의 공격성을 부적으로 예측하므로[26] 사이버불링

행동을 낮추리라 기대되었지만 몇몇 연구들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적대적 귀인편향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피해자 민감성과 가해자 민감성의 다중가산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적대적 귀인편향과 피해자 민감성의 상호작용항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지만 (coeff. = .01,  $p < .001$ ) 적대적 귀인편향과 가해자 민감성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지 않았고[16] 마찬가지로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에 관한 인터넷 사용시간과 정의민감성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피해자 민감성 수준만 인터넷 사용시간과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에 연구자들은 가해자 정의민감성이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의 상황적 맥락이 달라 민감성이 덜 표출되었을 수 있으며, 이후 이를 확인하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인을 직접적인 사이버불링 가해 경험이 아닌 사이버불링경향성으로 설정하여 가해자 정의민감성이 직접적인 가해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간접적인 참여나 의향에는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는 전위된 공격성과 사이버불링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정의민감성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변인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특히 정의민감성의 조절효과는 가해자 정의민감성에 있어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는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전위된 공격성과 사이버불링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정의민감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성인의 건강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한국 국적의 20대 성인 261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1개월 간 Google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응답 중 참여자의 연령이 20대 이상인 경우, 연구자가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 총 9명의 자료를 제외하였고 최종 252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설문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는

공격성, 가해 경험 및 가해 의도를 가진 경험 등에 대해 응답하길 요구하였기 때문에 참여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고자 응답하는 반응 편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를 방지하고자 설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 목적은 설명되지 않았으며 참여자들은 사전에 익명성의 보장과 응답 내용이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고지받았다. 또한, 본 연구는 참여자들이 응답 내용을 연구자가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하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연구참여자에게는 정보 제공 및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편익점 1천원 상품권이 주어졌다.

## 2.2 측정 도구

### 2.2.1 사이버불링경향성척도(Cyber Bullying Tendency Test: CBTT)

사이버불링경향성은 윤미선, 김명주, 박정호의 사이버불링경향성 검사(Cyberbullying Tendency Test: CBTT)를 사용하였다[30]. CBTT는 사이버모욕, 사이버스토킹,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위장, 사이버따돌림, 심리정당화, 윤리태도의 8개 하위요인,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최근 3개월간 사이버불링 경험이 있거나 그리고 싶었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참여자는 그 빈도가 전혀 없음(1점), 한두 번(2점), 일주일에 여러 번(3점), 한 달에 여러 번(4점) 중 하나로 평정하도록 요구된다. 총점이 높을수록 사이버불링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윤미선, 김명주, 박정호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로 보고되었다. [30]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80이었다.

### 2.2.2 한국판 전위된 공격성 질문지(Korean Version of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K-DAQ)

전위된 공격성은 Denson, Pedersen 및 Miller가 개발한 전위된 공격성 질문지(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DAQ)를 [31] 이하나가 변안,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32] K-DAQ도 원 DAQ와 같이 행동적 전위된 공격성(9문항), 분노반추(10문항), 보복계획(8문항)으로 세 요인으로 분류된다. 문항 내용은 자신과의 일치 수준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7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전위된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하나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로 보고되었다.[32]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95이었다.

### 2.2.3 정의민감성 척도 (Justice Sensitivity Scale: JSS)

정의민감성 척도(Justice Sensitivity Scale: JSS)는 Schmitt, Gollwitzer, Maes와 Arbach에 의해 개발되어 Bondü와 Elsner가 수정 및 타당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16] 연구에서 번안된 척도를 사용하여 정의민감성을 측정하였다[16]. JSS는 정의민감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인 피해자, 가해자, 관찰자 민감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 가해자의 특성을 측정하는 연구 목적에 따라 관찰자 민감성 문항을 제외하고 피해자 민감성(5문항)과 가해자 민감성 문항(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6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피해자 민감성 총점이 높을수록 자신이 타인에 의해 불공정한 상황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해자 민감성 총점이 높을수록 타인을 희생양 삼아 정당하지 않은 이득을 취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27]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Cronbach's  $\alpha = .78$ 로 보고되었으며 [16] 연구에서 피해자 정의민감성의 내적합치도는 Cronbach's  $\alpha = .82$ , 가해자 정의민감성의 내적합치도는 Cronbach's  $\alpha = .83$ 였다[16].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정의민감성의 Cronbach's  $\alpha$ 는 .82이었으며 피해자 민감성의 Cronbach's  $\alpha$ 는 .81, 가해자 민감성의 Cronbach's  $\alpha$ 는 .85로 나타났다.

## 2.3 통계 분석

가설검증을 위하여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된 인터넷 사용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시행하였고 빈도분석을 통해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전위된 공격성과 피해자, 가해자 정의민감성이 사이버불링경향성을 예측하는지, 피해자, 가해자 정의민감성이 전위된 공격성과 사이버불링경향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상호작용항의 방향성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평균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조절 효과를 분석할 때 선행연구에서 전위된 공격성, 가해자 정의민감성이 성별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됨에 따라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자료를 평균중심화 하였다. 이후 다중공선성을 측정할 결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최소 1.114에서 최대 1.612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 3. 연구결과

#### 3.1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기술통계

연구대상자들의 성비는 남성 41.7%(105명), 여성 58.3%(147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연령은 23.3세(SD=2.48)로 20대 초반이 가장 많았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사이버불링경향성, 전위된 공격성, 정의민감성(피해자 민감성, 가해자민감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포함한 기술통계량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사이버불링경향성의 총점의 평균은 37.43(6.04), 전위된 공격성은 78.39(29.30), 정의민감성 중 피해자민감성은 12.07(5.05), 가해자민감성은 14.94(5.35)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은 왜도의 값이 절대값 기준 2를 넘지 않았고, 첨도의 값이 절대값 기준 7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3.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려고 성별, 사이버불링경향성, 전위된 공격성, 정의민감성(피해자 민감성, 가해자 민감성)변인들 간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사이버불링경향성은 독립변인인 전위된 공격성( $r=.45, p<.01$ )과 유의하게 정적상관하였다. 이는 전위된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이버불링경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조절변인 중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사이버불링경향성( $r=.33, p<.01$ ) 및 전위된 공격성( $r=.57, p<.01$ )과 정적상관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이 높은 전위된 공격성과 사이버불링경향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편 가해자 정의민감성은 전위된 공격성( $r=.23, p<.01$ )과 유의하게 정적 상관하였으나 사이버불링경향성과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이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높은 전위된 공격성 또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3 사이버불링경향성에 대한 영향력 검증

##### 3.3.1 전위된 공격성이 사이버불링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전위된 공격성이 사이버불링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전위된 공격성은 사이버불링경향성에 대하여 20%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들은 23%의 설명력을 가졌으며 그 중 보복계획( $t=4.487, p<.001$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3.3.2 정의민감성(피해자 민감성, 가해자 민감성)이 사이버불링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정의민감성이 사이버불링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정의민감성 중 피해자 민감성은 사이버불링경향성을 1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해자 민감성은 단순 회귀분석에서 사이버불링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 3.4 정의민감성(피해자 민감성, 가해자 민감성)의 조절효과 검증

전위된 공격성의 효과가 정의민감성(피해자 민감성, 가해자 민감성)의 수준에 따라 사이버불링경향성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인, 조절변인, 상호작용항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절차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가 .62~1로 모두 0.1 이상이었으며, VIF는 1~1.61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총 3단계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1단계에서 통제변인인 성별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 전위된 공격성과 정의민감성(피해자, 가해자 민감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전위된 공격성과 정의민감성의 두 하위변인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통제변인인 성별이 포함된 1단계 연구 모형의 설명력은 1%( $p>.05$ )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뒤이은 2단계( $\beta=-2.312, p<.001$ )와 3단계( $\beta=-2.340, p<.001$ )에서는 효과가 유의하였다. 성별의 통제가 작용한 2단계에서는 설명력이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N=252)

Variables	Score range	M	SD	Min	Max	skew	kurtosis
Cyberbullying tendencies	29~116	37.43	6.04	29	65	.94	1.24
Displaced aggression	27~189	78.39	29.30	27	153	.29	-.73
Justice sensitivity							
Victim sensitivity	0~25	12.07	5.05	0	24	-.32	-.10
Penetrator sensitivity	0~25	14.94	5.35	0	25	-.64	.69

Table 2. Correlation among Displaced aggression, Cyberbullying tendencies, Victim sensitivity and Penetrator sensitivity

	1	2	3	4-1	4-2
1. Sex	1				
2. Cyberbullying tendencies	-.08	1			
3. Displaced aggression	.19**	.45**	1		
4. Justice sensitivity					
4-1..Victim sensitivity	.22**	.33**	.57**	1	
4-2..Penetrator sensitivity	.28**	.11	.23**	.29**	1

$p < .05$ ;  $p < .01$ \*\*  $p < .001$ \*\*\*

Table 3. Effect of Displaced aggression on Cyberbullying tendencies

Variables	B	SE	$\beta$	t	F	R <sup>2</sup>
Displaced aggression	.092	.012	.447	7.909***	62.552***	.2
Angry rumination	.044	.031	.111	1.4		
Revenge planning	.183	.041	.326	4.487***	24.291***	.23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085	.045	.125	1.897		

$p < .05$ ;  $p < .01$ \*\*  $p < .001$ \*\*\*

Table 4. Effect of Justice sensitivity (Victim sensitivity and Penetrator sensitivity) on Cyberbullying tendencies

Variables	B	SE	$\beta$	t	F	R <sup>2</sup>
Victim sensitivity	.389	.072	.325	5.442***	29.612***	.11
Penetrator sensitivity	.126	.071	.112	1.782	3.176	.01

$p < .05$ ;  $p < .01$ \*\*  $p < .001$ \*\*\*

Table 5. The Moderating Role of Justice sensitivity (Victim sensitivity and Penetrator sensitivity)

Step	Variables	B	SE	$\beta$	t	R <sup>2</sup>	$\Delta R^2$	F
1	Sex <sup>a</sup>	-.92	.77	-.08	.23	.01	.00	1.43
	Displaced aggression (A)	.08	.01	.40	5.90***			
2	Justice sensitivity							
	Victim sensitivity (B)	.15	.08	.13	1.86	.24	.23	19.45***
	Penetrator sensitivity(C)	.04	.07	.04	.58			
3	AxB	-.00	.00	-.03	-.57	.26	.02	14.38***
	AxC	-.01	.00	-.15	-2.43*			

<sup>a</sup>Dummy variable: Male = 0, Female = 1

$p < .05$ ;  $p < .01$ \*\*  $p < .001$ \*\*\*

1단계에 비해 23% 증가하여 총 24% 설명력을 가졌다. 독립인 중 전위된 공격성( $\beta=.40, p<.001$ )이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는데 이는 전위된 공격성, 즉 공격성을 직접 유발한 대상이 아닌 다른 무고한 곳에 표현하는 성향이 높은 개인일수록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을 공격할 경향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 사이버불링경향성에 대한 피해자 민감성과 가해자 민감성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는 2단계에 비해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모형의 설명력이 2% 증가한 26%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인 중 전위된 공격성( $\beta=.40, p<.001$ )이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는데 이는 전위된 공격성, 즉 공격성을 직접 유발한 대상이 아닌 다른 무고한 곳에 표현하는 성향이 높은 개인일수록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을 공격할 경향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 사이버불링경향성에 대한 피해자 민감성과 가해자 민감성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는 2단계에 비해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모형의 설명력이 2% 증가한 26%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상호작용항 중 전위된 공격성과 가해자 민감성 상호작용항만이 사이버불링경향성에 대해 부적인 영향( $\beta =-.15, p<.05$ ) 유의미하였다. 이는 가해자 민감성의 수준에 따라 전위된 공격성이 사이버불링경향성에 끼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사이버불링경향성에 대한 전위된 공격성과 피해자 민감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해자 민감성의 수준에 따라 전위된 공격성이 사이버불링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위된 공격성과 가해자 정의민감성을 각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균 상 집단과 평균 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집단별 사이버불링 경향성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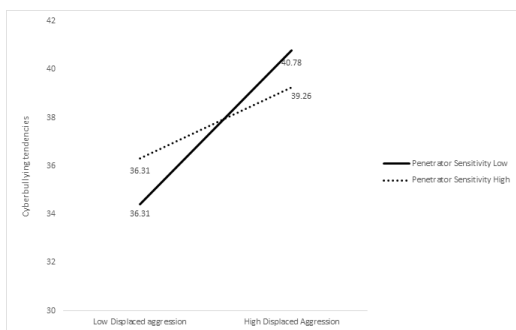


Fig. 1. Moderating effect of Penetrator sensitivity on the relation between Displaced aggression and Cyberbullying tendencies

그래프에 따르면 전위된 공격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높은 가해자 민감성을 가진 집단이 낮은 가해자 민감성을 가진 집단보다 낮은 사이버불링경향성 평균을 나타냈다. 한편, 전위된 공격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가해자 민감성이 높은 집단이 가해자 민감성이 낮은 집단보다 사이버불링경향성의 평균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iken & West가 제안한 바에 의하여[33] 가해자 민감성 상집단과 하집단 각각에 대해 사이버불링경향성에 대한 전위공격성의 회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가해자 민감성 평균 상 집단의 회귀계수는 .37( $p<.001$ ), 평균 하 집단의 회귀계수는 .63( $p<.001$ )이다. 가해자 민감성이 높은 집단은 전위된 공격성이 높은 조건에서 낮은 사이버불링경향성을 보였고 가해자 민감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전위된 공격성이 높은 경우 높은 사이버불링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gression Coefficients of Displaced Aggression on Cyberbullying tendencies for Low- and High Penetrator Sensitivity Groups

Penetrator Sensitivity	Regression Coefficients of Displaced Aggression on Cyberbullying tendencies		
	B	S.E.	$\beta$
High groups( $n=155$ )	.08	.02	.37***
Low groups( $n=97$ )	.13	.02	.63***

$p<.05^* p<.01^{**} p<.001^{***}$

## 4. 논의

### 4.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전위된 공격성과 정의민감성(피해자 민감성, 가해자 민감성)이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정의민감성(피해자 민감성, 가해자 민감성)의 수준에 따라 전위된 공격성이 사이버불링경향성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성별에 따른 사이버불링경향성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있어서 성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한다는 선행연구[34]의 주장을 가해행동 뿐만 아니라 경향성까지 확장하는 결과이다. 전위된 공격성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전위된 공격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전위된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35]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정의민감성(피해자 민감성, 가해자 민감성)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않은 조건에서 성차가 유의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정의와 관련한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정의민감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18]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둘째, 전위된 공격성이 사이버불링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위된 공격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이버불링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위된 공격성이 사이버불링경향성과 정적 상관 하며, 인과적으로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선행 연구[1]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전위된 공격성이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36] 또한 뒷받침하는데 사이버불링의 배경이 되는 인터넷 공간은 비대면 상황으로 익명성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전위된 공격성이 높은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 유발된 공격성을 주로 사이버불링의 형태로 표현하고자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악성댓글을 많이 다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15]의 결과에 착안하여 전위된 공격성 또한 사이버불링과 관련이 있으리라 추론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공격성의 일종인 전위된 공격성은 사이버불링경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사이버불링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성을 세부적으로 조명하였다는 함의를 가진다.

셋째, 전위된 공격성과 사이버불링경향성의 관계를 정의민감성 중 가해자 민감성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위된 공격성이 사이버불링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가해자 민감성의 수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높은 가해자 민감성이 상호작용하여 사이버불링의 가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송지연의 연구 결과 [37]와 다소 일관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해자 민감성이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고 공격 행동을 낮추는 요인으로써 작용한다는 선행연구[26]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의민감성의 또 다른 하위변인인 피해자 민감성의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 민감성이 중학생의 적대적 귀인편향과 상호작용하여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유가람의 연구와 중학생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피해자 민감성과 상호작용하여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박주희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16,17].

본 연구에서 피해자 민감성이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이유로는 먼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과 사이버불링 경향성의 차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 일정 기간 안에 자행된 가해행위의 빈도를 측정하지만 사이버불링경향성은 가해행위의 빈도뿐만 아니라 가해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던 경험까지 함께 측정한다. 따라서 자신의 피해를 입었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격특성은 실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수준에서 사이버불링 의도를 갖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연구대상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볼 수 있다. 국내 사이버불링 관련 연구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의민감성(피해자 민감성, 가해자 민감성)을 변인으로 사용하여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예측한 연구들 또한 중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6,17]. 한편, 본 연구는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인지적 발달 수준에 따라 정의민감성(피해자 민감성, 가해자 민감성)의 효과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기에는 전전두엽 영역의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며[38] 발달의 과도기적 특성으로 자아중심성이 발현된다[39]. 타인에게서 오는 관심의 양을 사실보다 과장되게 해석하는 '상상의 청중'은 청소년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이는 피해자 민감성의 '자신과 관련된' 부당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기지향적 특성과 관련지어질 수 있다[16,40].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은 청소년 중기 이후, 타인과 정서적 관계를 맺고 자신과 타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며 점차 사라진다[41]. 이처럼 성인기에 가까워지면서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타인조망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가해자 민감성의 타인에게 가하는 부당함에 주목하는 타인지향적 특성[16,42]과 연관될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 집단에서는 자신이 입은 피해 단서를 민감하게 지각하는 특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이들이 청소년기 후반, 성인기에 가까워지며 자기중심성을 극복함에 따라 20대 성인집단에서는 사이버불링경향성에서 조차 피해자 민감성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이버 비행의 패턴을 분석한 정혜원의 연구에서 15세에서 19세로 이르는 5년간 사이버 비행이 감소한 뒤 정제한 현상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3]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수집한 사이버불링경향성의 분포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사이버불



링경향성 분포는 왜도와 첨도값에 있어 정규분포를 만족하였으나 정적분포의 양상을 띠었다. 이는 대체로 사이버불링을 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적이 없는 이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는 의미로, 평소 이러한 경향이 낮은 이들이 높은 가해자 민감성 및 낮은 피해자 민감성을 가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

#### 4.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탐색이 제한적이었던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주요 변인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주된 인터넷 사용 목적을 선택하여 응답을 수집하였다. 그러나 탐색된 변인들 이외에 사이버불링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사용시간은 사이버불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꼽힌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폭력 가해·피해 경험 여부 또한 그러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더욱 폭넓게 탐색하여 분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사이버불링경향성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경향성에 대한 해석이 실제 가해 행동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경향성이 얼마나 실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으로 이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서 본 연구는 사이버불링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이버불링경향성 검사(CBTT)를 사용하였다. '일주일에 여러 번'과 '한 달에 여러 번'은 응답하는 사람에 따라 어떤 것이 사이버불링경향성이 더 중한 상태인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여지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전위된 공격성의 하위변인 중 보복계획만이 사이버불링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 반추와 전위공격적 행동경향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전위된 공격성의 보복계획을 세워 원한을 유지하는 특성이 사이버불링경향성과 특히 관련됨을 의미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전위된 공격성의 인지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사이버불링과의 관계성을 살펴볼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이버불링경향성에 대한 전위된 공격성의 효과가 정의민감성(피해자 민감성, 가해자 민감성)의 조절 효과가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소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연령차로 발달상 자기중심성이 달라 정의민감성(피해자 민감성,

가해자 민감성)의 효과가 달라졌을 것이라 추론하였다. 하지만 논리적인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지하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연령대를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구분하여 두 집단의 정의민감성(피해자 민감성, 가해자 민감성)에 따라 전위된 공격성이 사이버불링경향성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성인 중 20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30대 이상의 다른 연령대의 성인에게도 연구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때문에, 이에 대해 추가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 점차 심각해지는 문제인 사이버불링에 대한 대안으로 가해자 민감성을 높이는 개입이 효과적일 것이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전위된 공격성이 사이버불링을 유발하는 일차적인 원인일 것이라고 상정하였지만 현대 사회의 특성상 유발된 공격성을 그 자리에서 표현하고 해결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전위된 공격성을 입력으로 통제할 수 없으므로 사이버불링 예방에 있어서 가해자 민감성을 높이는 개입은 더욱 중요해진다. 가해자 민감성은 타인에게 가하는 부당함에 대해 인식하고 죄책감과 불편함을 느끼는 특성이지만 인지적 개입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할 여지 또한 있다. 예를 들어 괴롭힘을 당하는 타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태도나 제삼자가 자신의 행동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낄지 고려하는 조망능력을 향상하는 개입은 타인 지향적인 특성을 가진 가해자 민감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REFERENCES

- [1] Y Choi & H. S. Kim. (2018). The Mediating Effects of Displaced Agg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Experiences and Cyberbullying Tendencies in Early Adolescents. *Family and family therapy, 26*(3), 321-341.
- [2] J. Suler. (2004).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Psychoanalytic Studies, 1*, 359-362. DOI : 10.1002/aps.90
- [3] J. H. Lee & S. C. An. (2013).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Cyberbullying. *Dispute Resolution Research, 11*(1), 133-157.
- [4] S. Hinduja & J. W. Patchin. (2012). *Bullying: Beyond the schoolyard :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yberbullying. (Airspace other than Joabi. Cyber*

- violence*). Seoul : Jeong Minsa.
- [5] J. W. Patchin & S. Hinduja. (2006). Bullies Move Beyond the Schoolyard: A Preliminary Look at Cyberbullying.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4(2), 148-169.  
DOI : 10.1177/1541204006286288
- [6] R. Slonje, P. K. Smith & A. Frisén. (2012). Process of cyberbullying, and feelings of remorse by bullies: A pilot study.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9(2), 244-259.  
DOI : 10.1080/17405629.2011.643670
- [7] E. G. Na. (2020). *Newspim*.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131001337>.
- [8] Korea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9). *2019 Cyber Violence Survey*. Seoul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9] K. E. Kim. (2013). Risk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Cyber Viol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linquent Friends. *Journal of the Future Youth Society*, 19(4), 133-159.
- [10] H. J. Shim. (2014). A Study on the Motives and Control Factors of Adolescents' Cyber Violence: Focused on Mobile Instant Messenger. *Data published by the Institut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olicy*.
- [11] K. H. Park & M. J. Seo. (2013). The Relations of Psychological Well-Being, Self-Esteem, Somatization, Depression and Displaced Aggression.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ealth*, 18(1), 163-181.
- [12] J. Dollard, L. W. Doob, N. E. Miller, O. H. Mowrer & R. R. Sea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eaven : Yale University Press.
- [13] S. A. Kim, E. H. Bang & Y. S. Han. (2016). A Meta-Analysis of Cyberbullying Perpetration Research among Youth.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314-314.
- [14] C. H. Lee, N. M. Shin & E. B. Ha. (2014). *A Study on the Situation of Youth Cyberbullying and Measures to Prevent It*. Sejong :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 [15] A. Jo & J. Y. Lee. (2010). An exploratory study on the use of malicious comments in cyberspace. *Youth Counseling Research*, 18(2), 117-131.
- [16] G. R. Yu. (2019). *Influence of Hostile Attribution Bias on Cyberbullying Perpetr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 Multiple Additive Moderating Effect of Justice Sensitivity*.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 [17] J. H. Park. (2018). Effect of the Amount of Time Online on Cyberbullying Perpetr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 Moderating Role of Justice Sensitivity. *Family and environmental studies*, 56(6), 619-626.
- [18] M. Schmitt, A. Baumert, M. Gollwitzer & J. Maes. (2010). The justice sensitivity inventory: Factorial validity, location in the personality facet space, demographic pattern, and normative data. *Social Justice Research*, 23(2-3), 211-238.  
DOI : 10.1007/s11211-010-0115-2
- [19] M. J. Schmitt, R. Neumann & L. Montada (1995). Dispositional sensitivity to befallen injustice. *Social Justice Research*, 8(4), 385-407.  
DOI : 10.1007/BF02334713
- [20] D. K. Kim. (2019).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Sensitivity to Victim Justice on Reactive Aggression*.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raduate school, Gwangju.
- [21] A. Baumert, K. Otto, N. Thomas, D. R. Bobocel & M. Schmitt. (2012). Processing of unjust and just information: Interpretation and memory performance related to dispositional victim sensitivity.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6(2), 99-110.  
DOI : 10.1002/per.1844
- [22] R. Bondü & P. Richter. (2016). Linking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in adults to justice and rejection sensitivity. *Psychology of Violence*, 6(2), 292.
- [23] C. Mohiyeddini & M. J. Schmitt. (1997). Sensitivity to befallen injustice and reactions to unfair treatment in a laboratory situation. *Social Justice Research*, 10(3), 333-353.  
DOI : 10.1007/BF02683307
- [24] S. Y. Lee, Y. M. Yoo & E. L. Kim. (2018). The Relationship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Victim Justice Sensitivity,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Reactive Aggression : The Moderating Effect of Effortful Control.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evelopment*, 31(4), 143-165.
- [25] R. Bondü. (2018). Is bad intent negligible? Linking victim justice sensitivity,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44(5), 442-450.  
DOI : 10.1002/ab.21764
- [26] R. Bondü, T. Rothmund & M. Gollwitzer. (2016). Mutual long-term effects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and justice sensitivity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48, 62-72.  
DOI : 10.1016/j.adolescence.2016.01.007
- [27] R. Bondü & B. Elsner. (2015). Justice sensitivity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Social Development*, 24(2), 420-441.  
DOI : 10.1111/sode.12098
- [28] R. Bondü & B. Elsner. (2014). Links of justice and rejection sensitivity with agg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ggressive Behavior*, 41(4), 353-368.  
DOI : 10.1002/ab.21556
- [29] R. Bondü & B. Elsner. (2015). Link of justice and rejec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ggressive Behavior*, 41(4), 353-368.  
DOI : 10.1002/ab.21556
- [30] M. S. Yoon, M. J. Kim & J. H. Park. (2015). Developing an evaluation tool to measure the tendency of cyber

bullying. *paper by the Computer Education Society*, 18(2), 59-70.

- [31] T. F. Denson, W. C. Pedersen & N. Miller. (2006). The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6), 1032-1051. DOI : 10.1037/0022-3514.90.6.1032
- [32] H. N. Lee. (2009). *Exploratory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an avant-garde aggression group*.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33] L. S. Aiken & S. G. West.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34] R. D. Rey, P. Elipse & R. Ortega-Ruiz. (2012). Bullying and cyberbullying: Overlapping and predictive value of the co-occurrence. *Psicothema*, 24(4), 608-613.
- [35] S. M. Jae.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displaced agg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 [36] H. Y. Lee & D. H. Seok. (2017). Effects of Evaluation Feedback, Social Status of the Target and Anonymity on Displaced Aggression. *Region and world*, 41(1), 209-231.
- [37] J. Y. Song. (2020). *The effect of controlling the sensitivity of justi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yberbullying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cheon.
- [38] P. Shaw et al. (2006). Intellectual ability and cortical development in children and adolescents. *Nature*, 440, 676-679. DOI : 10.1038/nature04513
- [39] D. Elkind. (1967). Egocentrism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38, 1025-1034. DOI : 10.1111/j.1467-8624.1967.tb04378.x
- [40] A. Baumert & M. Schmitt. (2009). Justice-sensitive interpretations of ambiguous situation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61(1), 6-12. DOI : 10.1080/00049530802607597
- [41] I. G. Kim. (1994). A Content Validation Study of the Subconstruct of Adolescence Egocentrism.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evelopment*, 7(1), 21-43.
- [42] M. Schmitt, M. Gollwitzer, J. Maes & D. Arbach (2005). Justice sensitivity: Assessment and location in the personality spac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1(3), 202-211. DOI : 10.1027/1015-5759.21.3.202
- [43] H. W. Jung. (2010). The Changes of Cyber Delinquency and The Predictors in Adolescence. *criminal policy research*, 263-288.

### 소 예 은(Ye-Eun So)

[정회원]



- 2019년 2월 :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학사)
- 2021년 2월 :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석사)
- 관심분야 : 임상심리, 사이버범죄, 공격성
- E-Mail : ungo3319@naver.com

### 김 해 숙(Hae-Sook Kim)

[정회원]



- 1998년 8월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문학사)
- 2001년 2월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문학석사)
- 2018년 2월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심리학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트라우마, 심리치료, 범죄심리, 임상심리
- E-Mail : 2015154@honam.ac.kr